

정의선, 회장 취임 첫 행보도 '수소경제'... 그룹 미래 걸었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부와 수소충전소 구축 맞춘
수소경제위 참석해 의지 밝혀
내년 2월내 특수목적법인 출범
3년 내 충전소 25개 추가 설치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첫 대회 행사로 '수소경제'를 선택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수소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시장 확대에 주력하며 수소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회장에 오른 뒤에도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15일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과 함께 진행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수소 상용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협약은 사람과 물자 운송의 핵심 주체인 상용차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민관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을 출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 2월 이내 공식 출범을 앞둔 '코하이젠'은 2021년부터 10개의 기체 방식의 상용차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에는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25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하이젠'이 구축하게 될 액화 수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는 기체 방식의 충전소와 비교해 수소 연료의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도심 내 주유소와 같은 작은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장 효율도 뛰어나 대용량의 수소 충전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 양산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하이젠'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상용차 시장에서의 수소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기관은 그린 뉴딜의 핵심인 무공해 수소 버스

와 트럭의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며,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현대차와 함께 '코하이젠'에 참여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등 에너지기업 7개 사는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해 도심 내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수소 충전소 구축을 고려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변환 시대를 준비한다.

'코하이젠'의 주주 참여사들은 이달 중 '코하이젠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선정한 후 추가 참여사를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코하이젠'을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000만원대 수입 세단... 대중화 이끌 것”

폭스바겐 중장기 비전 발표

7세대 신형 제타 국내 첫 공개
2650대 한정 2300만원대 판매
연말 신형 파사트 등 라인업 확대

“한국에서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겠다.”

슈테판 크랍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사장이 15일 서울 광진구 캠퍼인더시티에서 개최된 '폭스바겐 미디어 데이'에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슈테판 크랍 사장은 다양한 라인업 확보와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다.

슈테판 크랍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차종과 파워트레인을 투입,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매력적인 라인업을 갖출 것”이라며 “폭스바겐은 진정으로 한국에서 수입차 시장의 대중화를 이끄는 최초의 수입차 브랜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실시하는 7세대 신형 제타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6세대 모델 대비 차체를 키우면서 실내 공간은 넓어지고 상품성은 대폭 개선됐지만 가격은 400만~700만원 가량 인하했다.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이 2714만9000원, 프레스티지 모델이 2951만6000원이다. 폭스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이 7세대 신형 제타를 소개하고 있다.

겐파이낸셜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2650대 한정으로 23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제타 외에도 2022년까지의 중장기 제품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테온과 제타에 이어 12월 중형 프리미엄 세단 신형 파사트 GT를 내놓고 세단 라인업을 늘린다.

폭스바겐코리아는 SUV 라인업도 확대한다. 지난 2월 출시 1개월 만에 수입 럭셔리 SUV 톱 3에 등극한 투아렉은 내달 초부터 새로운 2021년형을 선보인다.

내년 2월에는 소형 SUV 티록을 출시하며 2022년을 목표로 새로운 대형 SUV 테라몬트도 도입해 고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 시장에서 해치백 시장을 개척한

골프 역시 8세대 신형 모델로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되며 폭스바겐 순수 전기 SUV인 ID.4도 2022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폭스바겐코리아는 2022년까지 해치백에서부터 세단, SUV 모델에 이르는 다양한 세그먼트 라인업을 확장하는 한편, 디젤, 기술력 및 순수전기차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9월 말 강남구 신사동에 세계 최초로 뉴 폭스바겐의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한 첫 번째 판매 터치 포인트 '시티 스토어'를 오픈한데 이어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의 서비스센터인 '시티 익스프레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GS칼텍스 하이브리드車 전용 엔진오일 출시

GS칼텍스가 하이브리드차 전용 엔진오일의 출시로, 친환경 차량 수요를 고려한 전용 제품 개발 확대에 나선다.

GS칼텍스는 15일 국내 정유사 최초로 하이브리드차 전용 엔진오일 'Kixx HYBRID(키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키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차 시장 급성장에 발맞

춘 저점도 윤활유 제품이다.

GS칼텍스가 생산하는 고품질 윤활기유에 고성능 첨가제를 사용해, 뛰어난 연비개선 효과 및 엔진부품 보호성을 강화했다. 또, 국제 표준 엔진오일 인증기관인 미국석유협회(API)의 가장 최신 등급인 SP등급 규격을 충족하고 있다.

키스 하이브리드는 특별 패키징인 철제 용기(탄켄)에 담긴 초기 한정판 제품을 먼저 선보이며, 이번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이브리드차 동호회를 통한 무료 체험 이벤트 및 일반고객 대상 경품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한 키스 하이브리드 구매 마일리지 적립한 교환점을 대상으로 총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kim2935@

LG CNS “AI서비스 입맛대로 골라주세요”

시각·언어 등 10대 서비스 제공

LG CNS가 원하는대로 골라 쓰는 기업용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인다.

LG CNS는 15일 오후 2시부터 AI 서비스 플랫폼 관련 웹 세미나를 개최하고, LG CNS가 제공하는 AI 서비스와 실제 적용사례 등을 소개한다. LG CNS의 AI 서비스 플랫폼은 ▲시각 AI 3종 ▲언어 AI 6종 ▲복합 AI 1종 등 10대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오픈한 AI 서비스 포털에 접속해 이용이 가능하며, 기업이 업무 처리 시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을 해결하는 AI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AI 쇼핑몰'을 만든 것이다.

배송하기 전에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제대로 구성됐는지 신속하게 확인하고 싶은 기업은 시각 AI의 '상품인식'을



활용하면 된다. AI가 0.1초만에 어떤 제품인지 상품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다. 폭증하는 주문에도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다.

LG CNS의 모든 AI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웹 서비스다. 기본적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으며,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든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에 특정주소를 넣으면 '상품인식', '문서유형 분류' 등 AI 기능이 작동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SK(주) C&C, 디지털 혁신사례 저장소 오픈

'아큐에셋'에 AI·빅데이터 등 모아

SK(주)C&C는 제조·통신·금융 등 산업별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사용 알고리즘을 즉시 적용해 볼 수 있는 '아큐에셋'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큐에셋은 SK(주)C&C가 그동안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기술을 적용해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 서비스, 데이터셋, 사례 등 산출물을 선별해 업로드한 디지털 에셋 저장소다. 누구나 언제든지 아큐에셋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통해 계정 발급 후 사용 가능하다.

아큐에셋의 장점은 사용자가 SK(주)C&C의 AI 플랫폼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사례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공개한 산출물 중 일부는 기업 담당자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업로드해 실행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아큐에셋은 단순 포털을 넘어 디지털 에셋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공개된 내용 외 산업에 적용된 AI 모델과 데이터셋 등이 궁금하다면 각 산출물별로 표시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데이터 분석가들을 위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한 학습 데이터와 관련 라이브러리, R 및 파이썬 소스 코드 등도 제공한다. 실제 소스 코드를 구동해 볼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마련했다. /구서윤 기자